

청소년의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모형 검증* - 또래동조성의 작용을 중심으로 -

조 윤 주¹⁾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압력과 영향저항력의 상호작용이 또래동조성을 매개로 하여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 성별에 따라 이러한 모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남녀 39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과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Ping(1996)의 2단계 추정방법을 적용하였고, 다변량 델타방법을 이용한 Sobel(1982)의 공식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래압력과 영향저항력은 상호작용하여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에 영향을 미쳤고,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은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동조적 또래괴롭힘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의 작용을 저지시켜야 하며, 영향저항력의 조절효과가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 또한 동조적 또래괴롭힘이 또래동조성의 작용으로 유발된다는 본 연구의 매커니즘은 성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

주요어 : 동조적 또래괴롭힘, 또래압력, 영향저항력, 또래동조성

* 본 논문은 2009년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교수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소장

(E-mail : obchung@korea.ac.kr)

I. 서론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또래’라는 코호트(cohort)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청소년기는 가장 영향력 있는 타인의 존재가 부모로부터 또래로 전이되는 시기인 만큼(Berndt, 1979; Piaget, 1965), 또래영향은 더욱 중요해지고 그 파급력도 막대해진다. 이에 따라 또래관계에서 파생되는 행동문제들은 연구자들의 주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왔고, 그 중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또래괴롭힘’을 들 수 있다. 또래괴롭힘은 상대에게 해를 끼치거나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공격을 하는 것이다(Nansel et al., 2001; Olweus, 1978). 사회적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를 다시 정의해보면, 또래괴롭힘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집단 맥락에서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Pikas, 1975).

전통적으로 또래괴롭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해와 피해에 중점을 두는 이분법적 시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Olweus, 1991). 이 중 가해아들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고, 일반아들보다 반사회적 행동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Olweus, 1991). 가해아들의 이러한 개인적 특성들은 또래와의 지지적인 관계성을 형성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가해아들의 또래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은 친구를 잘 사귀고(Nansel et al., 2001), 일반아들만큼 또래지지를 얻어 평균수준의 인기를 지각하였으며(Rigby, 1997), 교실 내의 사회적 조직망에 잘 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Veenstra, Lindenberg,

Winter, Ormel, Oldehinkel, & Verhulst, 2005). 이와 같은 결과들은 가해아들의 개인적인 성격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또래괴롭힘에 접근하는 것이 또래관계성과 관련지어 가해행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한편, 집합체적인 관점에서 또래괴롭힘을 살펴본 연구들(심희옥, 2005; Sutton & Smith, 1999)은 주변 또래들의 역할을 가해아뿐 아니라, 가해강화자, 동조자, 방어자, 방관자로 구분하고, 이들 모두를 또래괴롭힘 상황의 구성요소로서 간주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전체아동의 85% 이상이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eda, 2003; Salmivalli et al., 1996; Sutton & Smith, 1999).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이 가해아와 피해아 이외에, 주변 또래들까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해 준다. 또래괴롭힘은 또래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괴롭힘 행동이 강화되는 집단적인 상황에서의 폭력이다(Pikas, 1975). 따라서 또래괴롭힘은 가해와 피해의 한 쌍으로만 구성된 배타적인 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주변 또래들의 역할까지 포괄하여 총체적인 시각으로 조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행동의 속성에 따라 가해아와 주변 가해아로 분류할 때, 이들은 서로 다른 행동적 특성을 나타낸다. 가해아가 가해행동을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면, 주변 또래들은 주도적인 가해행동에 동조하고, 이를 지지하며 강화하는 행동으로 괴롭힘에 편승하고 가담하는 행동적인 특

성을 나타낸다(Salmivalli et al., 1996). 따라서 가해행동에 대한 행동적인 속성의 구분 없이 ‘가해아’라는 하나의 역할에 모든 가해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또래관계의 맥락에서 괴롭힘 행동을 파악하는 데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변 또래들의 역할에서 나타나는 가해행동이 주된 가해아들의 가해행동과는 다른 행동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이 가담하는 가해행동적 특성을 ‘동조적 또래괴롭힘’이라 칭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동조적 또래괴롭힘’은 가해행동을 먼저 일으키는 적극적인 가해행동이 아닌, 주도적인 가해행동에 편승하고 가담하는 지지적이며 강화적인 가해행동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또래괴롭힘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또래괴롭힘이 또래현장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Griffin & Gross, 2004).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대다수의 아동들이 주도적인 가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행동이 시작되고 지속되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Salmivalli et al., 1996). 이러한 점은 또래괴롭힘에서 행동역할이 주변 또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특성임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은 또래라는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집단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Lagerspetz, Björkqvist, Berts, & King, 1982), 집단적인 성향이 발휘되어 작용하는 또래맥락적인 요소로서 또래동조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또래동조성은 또래집단으로부터 승인되는 행동양상을 채택하려는 행동적인 경향성(Santor, Messervey, & Kusumakar, 2000)을 일컫는다. 또래동조성은 또래집단의 행동을 채택하거나 거

부하는 행동적인 경향성(Berndt, 1979)을 의미하며, 사회적인 바람직성에 대한 가치판단의 유무에 따라 중립적인 성향과 반사회적인 성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반사회적 동조성은 도덕성이라는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립적 동조성과 개념적인 차이를 나타낼 뿐 아니라 발달적인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Berndt, 1979; Brown, Clasen, & Eicher, 1986), 이들이 행동문제에 작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원리를 형성한다고 간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또래동조성이 성향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동과의 관련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래동조성은 또래로부터 압력을 지각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또래압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Brown, Clasen, & Eicher, 1986; Santor, Messervey, & Kusumakar, 2000). 또래압력은 어떠한 행동에 대해 또래로부터 압박이나 강요를 느끼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으로(Brown, Clasen, & Eicher, 1986), 또래동조성의 형성에 중요한 전제요소가 된다. 그런데 또래동조성의 발달적인 변화는 또래압력과 더불어 동조에 대한 개인적 성향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므로(Brown, Clasen, & Eicher, 1986), 또래압력의 정도만으로 또래동조성을 가늠할 수는 없다. 또래동조성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래압력뿐 아니라, 외적인 영향에 반응하는 개인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또래영향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는 개인의 지각으로서 영향저항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Steinberg & Monahan, 2007). 영향저항력과 신경학적 매커니즘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Grosbras et al., 2007)에 의

하면 영향저항력의 수준에 따라 상위인지를 관장하는 전두엽의 대뇌피질에서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학적 지점들의 연결성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Grobras와 동료들(2007)에 의하면 영향저항력이 높은 아동들은 낮은 아동들에 비해 행동의 지각과 의사결정의 근간이 되는 신경체계를 잘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향저항력이 상위인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영향저항력의 수준에 따라 인지적·행동적인 특성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말해 준다.

또래압력 및 영향저항력과 또래동조성의 발달적 경향을 비교하여 이들의 관계성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동조성은 청소년중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역U자형의 곡선적인 발달양상을 나타낸다(Costanzo & Shaw, 1966; Iscoe, Williams, & Harvey, 1963). 청소년 중기를 기준으로 하면, 자아의 발달로 인해 영향저항력은 증가의 양상을 나타내는데 비해(Paus et al., 2008; Steinberg & Monahan, 2007; Sumter et al., 2007), 또래동조성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Berndt, 1979; Brown et al., 1986; Santor et al., 2000). 이를 통해 영향저항력의 증가가 또래압력의 증감과는 상관없이 또래동조성의 감소와 관련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아동 후기부터 청소년 중기까지는 또래동조성이 증가하지만, 영향저항력은 불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낼 뿐 감소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영향저항력보다 또래압력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청소년 중기까지 또래동조성에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 따라서 영향저항력의 수준과 상관없이 또래압력의 증가가 또래동조성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또래압력과 영향저항력의 상호작용이 또래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또래동조성은 또래로부터 지각하는 압력과 그러한 압력에 반응하는 개인적 능력이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작용한다(Steinberg & Monahan, 2007).

성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인식되는 만큼(Maccoby, 1988), 성차는 또래맥락적인 행동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청소년기의 또래동조성에서 성차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반사회적인 성향의 또래동조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Brown, Clasen, & Eicher, 1986; Santor et al., 2000; Sim & Koh, 2003). 이러한 결과들은 개별적인 성향이 강한 남학생들이 반사회적인 속성에 있어서 보다 또래지향적인 반면, 관계적인 속성이 강한 여학생들은 사회적인 제도에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성향을 적게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Gilligan, 1982). 하지만, 취미나 기호와 같은 중립적인 성향의 또래동조성에서는 남녀 간의 행동양상이 점차 동일해지고 성별로 인한 특성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Clasen, & Eicher, 1986).

동조적인 또래괴롭힘에 대한 성차를 살펴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가해강화나 동조적인 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nesini & Gini, 2000; Olthof & Goossens, 2003; Salmivalli & Voeten, 2004; Salmivalli et al., 1996). 이러한 차이는 여학생들이 관계적인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

행동에 가담하기보다는 피해아를 방어하거나 방관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Salmivalli & Voeten, 2004).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동조적 괴롭힘과 주도적인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친가해적인 가해행동”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괴롭힘 성향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희옥, 2008). 동조적인 가해행동에서 여아보다는 남아가 괴롭힘에 가담하는 행위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결과가 일치한다. 또한, 전통적인 시각의 가해행동에서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Boulton & Underwood, 1992), 또래괴롭힘에서 남학생들이 가해행동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종단적 연구를 통한 성차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Salmivalli et al., 1996), 여학생들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처음 자신이 나타냈던 역할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과 친한 친구들이 주로 나타내는 역할로 바꾸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역할행동에서 관계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래동조성이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면, 반사회적인 동조성이 문제행동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욱 강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Brown et al., 1986).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동조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박순길, 조중열, 박영호, 2003; 윤혜미와 남영옥, 2007). 이에 따라 또래동조성과 행동문제 간에는 성별에 따른 경향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영향력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지엽적인 영향력의 차이가 전체적인 매커니즘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모형인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도적인 가해행동에 동참하고 가담하는 주변가해자들의 가해 동조적인 행동을 ‘동조적 또래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동조적 또래괴롭힘의 매커니즘을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함과 동시에,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또래압력과 영향저항력의 상호작용효과가 또래동조성을 매개로 하여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또래동조성의 개념적 정의에 입각하고 변인들 간의 발달적 경향성을 고려하여 또래압력과 영향저항력이 상호작용하여 또래동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또래에 대한 동조성이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류나미, 윤혜미, 2008; 박순길, 조중열, 박영호, 2003; 이희경, 2001;

Bosari & Carey, 2001; Kobus, 2003; Santor et al., 2000)을 토대로, 또래동조성이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또래동조성은 또래압력과 영향저항력이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작용이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계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또래로부터의 영향은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Clasen & Brown, 1985; Ryan, 2001), 또래압력이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개념을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매개된 조절효과’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Edwards & Lambert, 2007; Little, Card, Bovaird, Preacher, & Crandall, 2007; Mueller, Judd, & Yzerbyt, 2005). 매개된 조절효과에서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영향의 관계가 조절변인에 의해 달라지지 않지만, 조절된 매개효과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Morgan-Lopez & MacKinnon, 2006). 그런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조절변인이 개입되는 경우는 조절된 매개효과와 매개된 조절효과가 분석적인 견지에서 동일하게 된다(Edwards & Lambert, 2007; Little, Card, Bovaird, Preacher, & Crandall, 2007; Mueller, Judd, & Yzerbyt, 2005).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는 이론적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Edwards & Lambert, 2007). 또한,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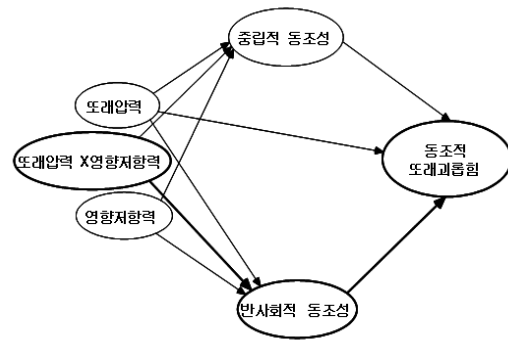


그림 1. 매개된 조절효과에 대한 개념모형

개된 조절효과가 유의할 경우에 매개관계가 조절변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식의 구체적인 검증을 시행하는 것은 매개된 조절효과의 이론적 함의를 오히려 조절된 매개효과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Little et al., 2007). 본 연구의 매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한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391명으로 남학생이 285명, 여학생이 106명이었다. 서울시내에 소재한 남녀 공학 중학교 세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중학교 2학년 총 21개 학급의 남녀학생 673명(남: 371, 여: 302)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1차적으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95부를 제외시켰고, 2차적으로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또래평가 점수가 하위 30%미만에 해당하여 동조적인 괴롭힘 행동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187명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아동 후기부터 청소년 초기는 또래괴롭힘이 빈번히 발생하고(Carney & Merrell, 2001), 또래 동조성이 증가하게 되는 시기이므로(Berndt, 1979; Brown et al., 1986),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학교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13세~14세(평균 13.4세)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있어서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가 전체의 65%(257명), 전업주부인 경우가 35%(134명)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가 173명(43.9%)으로 나타났고 둘째가 189명(47.4%)이었으며, 셋째가 27명(6.6%), 넷째가 2명(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가 있는 경우에 동성 형제의 유무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174명(45.6%)이 동성형제가 있었으며, 이성형제가 있는 경우는 197명(51%)이었다.

3. 측정도구

또래압력 측정도구

또래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Brown, Clasen과 Eicher(1986)의 또래압력척도(Peer Pressure Inventory: PPI) 중 또래활동, 또래규범, 비행과 관련된 세 영역을 번안하고 수정하여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Direct Oblimin)방식을 적용하여 3요인 구조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또래규범관련에 관한 문항들은 1요인과 2요인에 혼재하면서 .30미만의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또래규범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 실시한 결과 2요인 구조로 적절하게 배치되었다. 요인부하량이 낮으면서 더블로딩의 문제가 나타났던 두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요인과 2요인은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학 전문가들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구한 뒤, 1요인은 ‘또래활동관련’으로 2요인은 ‘반사회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교차타당도 확보를 위해 본 조사 실시 대상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값은 136, 자유도(df)는 43이었고, 적합도 지수들은 TLI가 .874, CFI가 .921, RMSEA가 .075이었다. 또래압력에 대한 2요인 모형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나타내었다. 또래압력 척도의 평정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가 .89로 나타났다.

영향저항력 측정도구

또래영향에 대한 저항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teinberg와 Monahan(2007)이 제작한 영향저항력척도(Resistance to Peer Influence Scale: RPIS)를 번안하고 수정하였으며 타당도를 구한 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가 .71로 나타났다.

또래동조성 측정도구

Berndt(1979)의 또래동조성척도(Peer Conformity Inventory: PCI)를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개정작업을 위하여 원척도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

에 맞는 에피소드를 골라 목록을 구성하였고, 1차 예비조사를 통해 209명을 대상으로 제시된 각 목록에 대해 최근 6개월간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를 ‘예·아니오’로 답하게 하였다. 이때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답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응답자의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나 이들을 채택하였고, 개방형질문을 통해 최근 6개월 동안 친구들이 함께하자고 부추겼던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를 답하게 한 후, 응답 내용을 토대로 상황별 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목록 중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던 순서를 고려하여 6개의 항목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항목들 중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1항목을 제외시키고 총 14개의 항목을 토대로 에피소드를 재구성하였다. 구성된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아동학 전문가 8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았으며, 그 중 내용이 성 편향적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하나의 항목을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13개의 에피소드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척도가 가설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답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지를 3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재구성된 척도는 각각 반사회적 동조성이 6문항, 중립적 동조성이 7문항이며,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중립적 동조성은 Cronbach의 α 가 .70로 나타났고, 반사회적 동조성은 Cronbach의 α 가 .72로 나타났다.

동조적 또래괴롭힘 측정도구

동조적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그리고 Kaukiainen(1996)이 제작한 참여자역할 척도

(Participant Role Scale: PRS) 중 가해강화자와 가해동조자에 해당하는 행동역할 목록을 채택하여 이를 경험적 행동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와 또래평가를 통한 다중측정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자기평가를 위해서는 채택된 가해행동 목록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한 빈도를 ‘전혀 없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는 .88로 나타났다. 또래평가를 위해서는 각 질문지에 해당학급에 속한 동성 급우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동성 또래들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자주 그런 편이다’까지 ‘0~2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분석에서는 각 학급의 동성 또래수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4. 연구절차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측정도구를 수정 및 개정하기 위하여 세 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과 각 변인들에 대해 대상자들이 나타내는 이해의 정도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남녀중학생 217명과 초등학교 6학년 아동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여자 중학교 1곳과 남자 중학교 1곳에서 여학생 89명과 남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또래 동조성 척도의 재구성과 또래압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3차 예비조사는 수정 또는 개정된 각 척도들

에 대해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난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본 조사

본 조사는 2008년 7월 14일~18에 걸쳐 서울 시내 소재 세 곳의 중학교에서 21학급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연구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각 학교들로부터 해당 학급의 명단을 입수하여 각 학급별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담임교사를 통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작성을 위한 소요시간은 약 20분~25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커니즘을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의 검증을 위해 상호작용효과 분석에서 잠재변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먼저, 상호작용효과와 검증에 있어서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의 고정에는 비선형제약(nonlinear constraint)을 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호작용항을 구성하는 각각의 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룬다 할지라도 상호작용항의 지표변수가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비선형제약이 불필요한 Ping(1996)의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단일지표 방식으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단일지표방식은 추정치가 편파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비정상성의 문제

가 덜 심각하고 표준오차에 대한 과소추정의 문제가 적다(Yang, 1997). 상호작용항의 구성에 있어 단일지표변수의 사용은 다중지표변수의 사용에 비해 추정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보다 나은 적합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Jaccard & Wan, 1996; Jöreskog & Yang, 1996). 또한 단일지표변수 구성을 위해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또래압력과 영향저항력의 지표변수들을 각각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후, 이들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에 위해서는 표준오차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다변량 델타방법(multivariate delta method)을 이용한 Sobel(1982)의 계산공식¹⁾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에 해당하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에 해당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선정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사회적 동조성과 중립적 동조성, 영향저항력은 각각 단일측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일측정변수에 대한 측정오차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Bandalos

1) 본 연구모형이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인 만큼, a 는 상호작용항이 매개변인으로 향하는 경로의 추정치를 나타내고, b 는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수에 이르는 추정치를 나타낸다. S_a 는 a 의 표준오차를 나타내고, S_b 는 b 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Z검증을 위한 Sobel(1982)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와 Finney(2001)가 제시한 무선으로 지표를 생성하는 방식(Random Splitting Method)으로 지표 변수를 생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과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변인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이론변인을 측정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이 적절하게 이론변인을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또래압력과 영향저항력의 상호작용이 또래동조성을 매개로 하여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개된 조절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

측정모형의 적합성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목적은 측정모형을 통한 추정치를 이용해서 상호작용항의 고정 값들을 계산하려는 것과, 이론변인들과 측정변인들의 관계가 적절한지를 적합도 지수를 통해 알아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여 측정변인

표 1.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유의 확률	TLI	CFI	RMSEA
측정모형	96.09	30	.000	.874	.931	.075

들의 정상성을 확인하였고, 전체모형의 이론변인들을 포화모형으로 구성하여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이 χ^2 값은 96.09이며, 자유도(df)는 30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TLI가 .874, CFI가 .931, RMSEA가 .075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측정모형은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었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

본 연구모형에서 매개된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Ping(1996)의 2단계 추정법으로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상호작용항의 구성을 위한 1단계로는 측정변수의 정상성을 확인하였고, 포화모형을 구성하여 이로부터 또래압력과 영향저항력의 분산 및 공분산을 추정하였으며, 각각의 지표변수들로부터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을 추정하였다. 2단계로는 1단계에서 추정한 값들로부터 상호작용항의 분산 및 지표변수의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의 값을 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추정치로부터 계산한 상호작용항의 분산 값이 0.91, 지표변수의 요인계수 값이 2.61, 오차분산 값은 17.74이었다. 주효과를 통제한 전체모형 속에서 이들 값을 고정시킨 후, 매개된 조절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의 경로계수

변수 간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또래압력	→	중립적 동조성	-1.00	-.15	.36	-.27
영향저항력	→	중립적 동조성	-.44	-.62	.49	-.89
또래압력x영향저항력	→	중립적 동조성	.08	.06	.13	.57
중립적 동조성	→	동조적또래괴롭힘	-.15	-.23	.10	-1.44
또래압력	→	반사회적 동조성	.06	-.24	.29	.23
영향저항력	→	반사회적 동조성	-.35	-.51	.39	-.88
또래압력 x 영향저항력	→	반사회적동조성	-.29	-.24	.14	-2.30*
반사회적 동조성	→	동조적또래괴롭힘	.37	.55	.13	2.65**
또래압력	→	동조적또래괴롭힘	.25	.59	.06	3.90***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상호작용항이 매개변인인 중립적 동조성과 반사회적 동조성으로 향하는 경로의 유의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또래압력과 영향저항력의 상호작용항이 또래동조성을 매개로 하는 경로에서 반사회적인 동조성으로 향하는 경로($\beta = -.24$, $p < .05$)만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인 동조적 또래괴롭힘으로 향하는 경로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반사회적 동조성에서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다($\beta = .55$, $p < .01$).

전체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이 반사회적 동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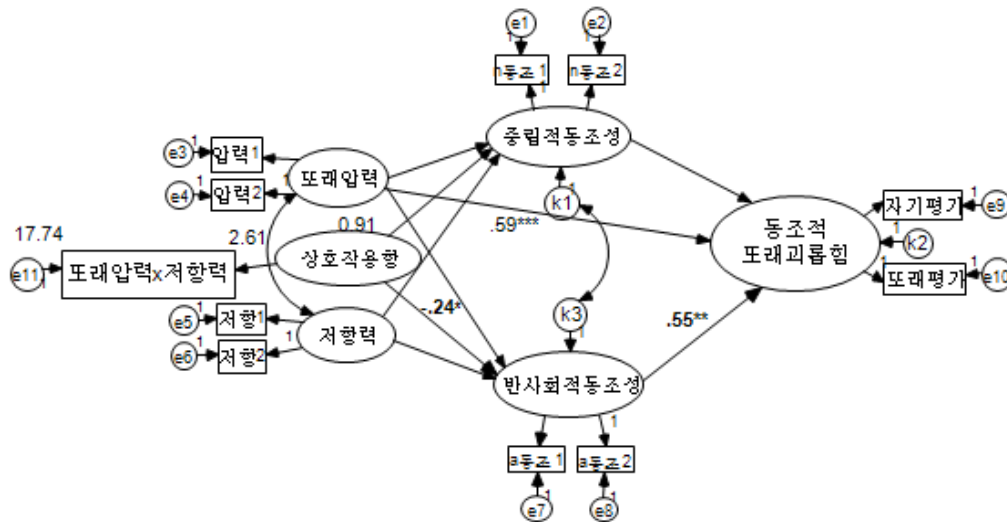


그림 2.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

성을 매개로 하는 경로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상호작용항의 매개효과 값(ab)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Sobel(1982)의 계산 공식을 적용하여 Z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 값은 유의수준 .05에서 -2.23으로 나타나,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의 적합도는 TLI가 .841, CFI가 .900, RMSEA가 .084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또래압력이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beta = .59, p < .001$),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모형에서 주효과를 통제하고도 또래압력이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해 주었다.

2. 성별에 따른 매개된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또래압력 및 영향저항력과

또래동조성이 동조적 또래괴롭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매개된 조절효과가 남녀 집단별로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각각의 집단에 대해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정이 만족된다면 집단별 구조동일성을 검증하게 된다(Hong, Malik, & Lee, 2003). 이에 앞서 각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경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특성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동조적 또래괴롭힘 행동에 대한 또래평가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t=13.02, p < .001$), 중립적 동조성과 반사회적 동조성에 있어서도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평가에서는 또래평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고, 중립적인 동조성

표 3. 주요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성차

척도	남		여		점수범위	전체(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또래압력	21.71	5.07	21.60	5.15	12~48	.19
영향저항력	27.80	3.54	27.88	3.83	10~40	-.19
중립적 동조성	15.12	2.98	15.85	2.38	7~28	-2.50*
반사회적 동조성	16.94	3.55	18.02	3.30	6~24	-2.72**
동조적 또래괴롭힘 (자기평가)	17.76	4.64	17.42	4.14	11~44	.67
동조적 또래괴롭힘 (또래평가)	7.98	2.45	6.95	1.85	0~22	13.02***

* $p < .05$, ** $p < .01$, *** $p < .001$

($t=-2.50$, $p<.05$)과 반사회적인 동조성($t=-2.72$, $p<.01$)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남녀 집단별 형태동일성

형태동일성은 가장 적합한 모형이 비교하는 양 집단에서 동일한 지를 기저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모형에 대해 남녀 집단별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형태동일성을 살펴보았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에서 자유도의 차이가 1, χ^2 차이값은 2.5로 나타나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적합도 지수들은 전체적으로 기저모형과 경쟁모형에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간명한 모형인 연구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지지되었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자유도 차이 1에서 χ^2 차이값이 0.1로 나타나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적합도 지수들은 경쟁모형에서 TLI가 .010, CFI가 .004, RMSEA가 .003만큼 더 나빠졌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연구모형이 더욱 적합한 모형으로 지지되었으며, 남녀 각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모형이 더욱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간의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으며 결과는 표 4에 제

시되어있다.

남녀 집단별 측정동일성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집단 간의 요인계수가 동일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별로 측정요인에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을 가한 후, 동일화 제약을 가하기 이전의 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χ^2 값은 184.9, 자유도는 75로 나타났다. 이를 기저모형과 비교해 보면 χ^2 차이값이 20.3으로, 자유도의 차이가 5일 때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기저모형에 비해 TLI가 .013, CFI가 .16, RMSEA가 .002만큼 나빠졌으므로 완전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은 남·여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모형에서는 완전 측정동일성이 기각되었으므로 부분 측정동일성을 검토해 보았다. 부분 측정동일성은 집단 간 최소한 두 개의 요인계수가 동일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각 요인의 계수에 대해 동일화 제약을 풀어준 뒤 기저모형과 비교함으로써 검토할 수 있다(Byrne, Shavelson, & Muthen, 1989). 동일화 제약을 풀어주기 위해서 χ^2 변화량이 컸던 동조적 또래괴롭힘과 또래압력, 그리고 영향저항력에서 동일화 제약을 풀어준 뒤 부분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분 측정동

표 4. 남녀 집단별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성별	남 (N=285)					여 (N= 106)				
모형	χ^2	df	TLI	CFI	RMSEA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09.9	35	.836	.896	.087	54.67	35	.875	.920	.073
경쟁모형	107.4	34	.835	.898	.087	54.57	34	.865	.916	.076

표 5. 남 녀 집단 간의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Delta\chi^2$	Δdf	TLI	CFI	RMSEA
형태동일성	164.6	70			.846	.902	.059
측정동일성 (완전제약 모형)	184.9	75	20.3	5	.833	.886	.061
부분 측정동일성 (부분제약 모형)	170.3	72	5.6	2	.844	.898	.059
완전 구조동일성	176.3	79	6	7	.860	.899	.056

일성 모형에서의 χ^2 값은 170.3이었고 자유도는 72로 나타나 기저모형과 비교해 볼 때, 자유도 차이 2에서 χ^2 차이값이 5.6로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기저모형에 비해 TLI가 .002, CFI가 .004만큼 나빠졌지만, 이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여겨질 수 있으며 RMSEA값이 동일하였다는 점에서 기저모형과 비슷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매개된 조절모형에서 남학생은 또래압력을 더 많이 지각하였고 여학생은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자기평가와 영향저항력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또래동조성 측정요인들에 있어서는 남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서 남녀 각 집단의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부분적인 동일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남녀 집단별 구조동일성

남녀 집단에 대해 모형의 형태동일성과 부분 측정동일성이 만족되었으므로 집단별 구조모형이 동일한지를 검증해 보았다. 구조동일성 검증은 각 집단별로 경로계수들 간의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분석하였다. 남녀 집단 간의 경로계수가 같다는 구조동일성 모형을 부분 측정동일성 모형과 비교한 결과, 표 5와 같이 χ^2 차이값은 6이었고 자유도의 차이는 7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남녀 집단별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어 완전 구조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적합도 지수들은 TLI가 .860, CFI가 .899, RMSEA가 .0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모형에 비해 적합도 지수들이 TLI가 .016, CFI가 .001, RMSEA가 .003만큼 좋아졌으며, 전반적으로도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어 남녀 집단 간에 구조동일성이 성립됨을 지지해 주었다. 따라서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는 남녀 두 집단에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가 남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동조적 또래괴롭힘이 유발되는 과정을 또래동조성의 작용기제에 중심을 두어 매개된 조절효과로 검증하고, 성별에 따라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가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조적 또래괴롭힘은 또래압력과 영향저항력의 상호작용이 반사회적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반사회적 동조성이 매개가 되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조적 또래괴롭힘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의 작용을 저지시켜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 또래압력과 영향저항력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영향저항력은 반사회적 동조성의 형성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면서 궁극적으로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해 보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향저항력과 같은 사회적 인지를 반영하는 요소에 대한 중재의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사회적 인지를 반영하는 기제가 또래괴롭힘 행동에 보호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은 선행연구들(양원경, 도현심, 1999; Adams, Ryan, Hoffman, Dobson, & Nielswn, 1985; Egan & Perry, 1998)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개인적 기제와 행동문제 간의 단편적인 영향관계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영향저항력이 또래압력의 영향을 상쇄시켜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의 형성을 저지시킴으로써,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보호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는 과정을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둘째,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에서 반사회적 동조성만이 상호작용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인 동조성은 주로 취미나 기호와 같은 측면의 동조성향을 의미하고, 반사회적인 동조성은 사회적인 바람직성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을 포함한다. 중립적 동조성이 또래압력 및 영향저항력과 단순상관관계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지만, 도덕적인 가치판단이 내포된 동조의 방향을 결정지을 때에 영향저항력과 같은 자아지각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관여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동조성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여 진다. 또한, 또래동조성이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에 동조적 또래괴롭힘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행동문제와 반사회적인 동조성이 결속된다는 연구결과들(류나미, 윤혜미, 2008; 박순길, 조중열, 박영호, 2003; Bosari & Carey, 2001; Kobus, 2003; Santor et al., 2000; Cohen & Prinstein, 2006)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셋째, 또래압력은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직접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또래로부터 압력을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동조적 또래괴롭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청소년들은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성인보다 또래와 더 많이 상호작용 한다(Elliott & Feldman, 1993). 이에 따라 청소년기에 또래영향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또래압력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또래압력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래괴롭힘에 가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영향이 문제행동에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결과들(Clasen & Brown,

1985; Ryan, 2001)은 본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매개된 조절효과로 살펴본 동조적 또래괴롭힘의 매커니즘은 성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또래괴롭힘에 관한 연구들은 가해행동이 유발되는 원인으로 개인의 성격 및 행동특성과 더불어 성별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였다(강진령, 유형근, 2000; Olweus, 1993; Rigby, 1997).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또래동조성의 작용으로 유발되는 동조적 또래괴롭힘의 매커니즘은 성별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보다는 또래에 동조하려는 관계맥락적인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변인들과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성차가 주목했던 연구들은(Menesini & Gini, 2000; Olthof & Goossens, 2003) 행동문제와의 단편적인 관계에서 성차를 살펴보거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주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변인들 간의 단편적인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동조적 또래괴롭힘이 유발되는 전체적인 매커니즘은 성별과 관계없이 작용한다는 점을 제시해주어 지엽적인 성차가 전체 매커니즘의 작용과는 별개라는 점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동조적 또래괴롭힘이 유발되는 매커니즘을 탐색하였지만,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횡단적인 연구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매커니즘은 종단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횡단적인 방법에서 주는 한계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다중측정을 위해 또래평가와 자아평가를 모두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Salmivalli, et al., 1996; Sutton & Smith, 1999)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또래평가가 자기평가보다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래평가의 경우에 대상학급의 크기에 따라 개인당 10명에서 21명에 이르는 비교적 많은 수의 또래를 평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다중측정이 주는 강점 이외의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보호요소로서 영향저항력이 기능한다는 점은 또래환경에서 압력에 맞서 유연하면서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지에 초점을 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해준다. 또한 동조적 또래괴롭힘을 유발하는 반사회적 동조성에 대한 매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시각에서 벗어나, 또래집단 속에서 맥락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동조성향에 가중치를 두어 파악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참고문헌

- 강진령, 유형근 (2000). 집단괴롭힘. 서울: 학지사.
- 류나미, 윤혜미 (2008).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또래동조성향 및 부모의 관리감독이 청소년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5, 39-69.
- 박순길, 조중열, 박영호 (2003). 또래 비행동조, 신체적 성숙 및 스트레스가 중학생의

-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473-486.
- 심희옥 (2005). 또래괴롭힘과 대인간 행동특성에 관한 횡단 및 단기 종단연구: 참여자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263-279.
- 심희옥 (2008). 또래괴롭힘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정서에 관한 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3), 191-205.
- 양원경, 도현심 (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16.
- 윤혜미, 남영옥 (2007). 청소년의 위험 행동 관련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127-153.
- 이희경 (2001). 공감수준과 친소관계가 따돌림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5(3), 281-297.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dams, G. R., Ryan, J. H., Hoffman, J. J., Dobson, W. R., & Nielsen, E. C. (1985). Ego identity status, conformity behavior, and personality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5), 1091-1104.
- Bandalos, D. L., & Finney, S. J. (2001). *Item parcel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and Schumacker, R. E. (Ed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606-616.
- Bosari, B., & Carey, K. B. (2001). Peer influences on college drinking: A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Substance Abuse*, 13(4), 391-424.
- Boulton, M.,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E. (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4), 521-530.
- Brown, B. B., Lohr, M. J., & McClenahan, E. L. (1986).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6, 139-154.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e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ial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466.
- Carney, A. G., & Merrell, K. W. (2001). Bullying in school: Perspective on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an international problem.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2(3), 364-382.

- Clasen, D. R., & Brown, B. B. (1985). The multidimensionality of peer pressure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6), 451-468.
- Cohen, G. L., & Prinstein, M. J. (2006). Peer contagion of aggression and health risk behavior among adolescent male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effects on public conduct and privat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77(4), 967-983.
- Costanzo, P. R., & Shaw, M. E. (1966). Conformity as a Function of Age Level. *Child Development*, 37(4), 967 - 975.
- Edwards, J. R., & Lambert, L. S. (2007). Methods for integrating moderation and mediation: A general analytical framework using moderated path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2(1), 1-12.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4(2), 299-309.
- Elliott, G. R., & Feldman, S. (1993). Capturing the adolescence experience. In S. Feldman, & G. R.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ce* (pp.1-13).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iffin, R. S., & Gross, A. M. (2004). Childhood bullying: Current empirical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4), 379-400.
- Grosbras, M., Jansen, M., Leonard, G., McIntosh,, Osswald, K., Paulsen, C., et al., (2007). Neural mechanisms of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Neuroscience*, 27(30), 8040-8045.
- Hong, S., Malik, M., & Lee. M.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Iscoe, I., Williams, M., & Harvey, J. (1963). Modifications of children's judgements by a simulated group technique: A normative 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34(4), 963-978.
- Jaccard, J., & Wan, C. K. (1996). *LISREL approaches to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 Thousand Oaks, CA: Sage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 Jöreskog, K. G., & Yang, F. (1996). Non-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Kenny-Judd model with interaction effects.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57-8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obus, K. (2003). Peers and adolescents smoking. *Addiction*, 98(1), 37-55.
- Lagerspetz, K. M. J., Björkqvist, K., Berts, M., & King, E. (1982). Group Aggression among schoolchildren in three school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3(1), 45-52.

- Little, T. D., Card, N. A., Bovaird, J. A., Preacher, K. J., & Crandall, C. S.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mediation and moderation with contextual factor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 207-230.
- Maccoby, E. E. (1988). Gender as a social categ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755-765.
- Maeda, R. (2003). Empathy, emotional regulation, and perspective taking as predictors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 bully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Menesini, E., & Gini, G. (2000). Il bullismo come processo di gruppo. Adattamento e validazione del Questionario "Ruoli dei Partecipanti" alla popolazione italiana. *EtaEvolutiva*, 66, 18-32.
- Morgan-Lopez, A. A., & MacKinnon, D. P. (2006). Demonstration and evaluation of a method for assessing mediated moderation. *Behavioral Research Methods*, 38(1), 77-87.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Simons-Morton, B., & Scheidt, P. (2001). Bullying behaviors among U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5(16), 2094-2100.
- Olthof, T., & Goossens, F. (2003). *Seeking respect and avoiding disrespect from peers as a motive to participate in bullying*. Paper presented in the 70th ISRA conference, 24-27 April, Tampa, Florida.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ying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Olweus, D. (1991). Bullying/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lter & K.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411-4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 Paus, T., Toro, R., Leonard, G., Lerner, J., Lerner, R., Perron, M., et al. (2008). Morphological properties of the action-observation cortical network in adolescents with low and high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Social Neuroscience*.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Pikas, A. (1975). *Sa stoppar vi mobbing*. Stockholm: Prisma.
- Ping, R. A. (1996). Latent variable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 166-175.
- Rigby, K. (1997). *The Peer Relations Assessment Questionnaire*. Point Lonsdale: Professional Reading Guide.
- Ryan, A. M. (2001). The peer group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young adolescent motivation and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 72(4), 1135-1150.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P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246-258.
- Santor, D. A., Messervey, D., & Kusumakar, V. (2000). Measuring Peer Pressure, Popularity, and Conformity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Predicting School Performance, Sexual Attitudes,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163-182.
- Sim, T., & Koh, S. (2003). A domain conceptualization of adolescent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1), 57-80.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pp.290-313). San Francisco: Jossey-Bass.
- Steinberg, L., & Monahan, K. C. (2007). Age differences in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531-1543.
- Sumter, S., Bokhorst, C., Steinberg, L., & Westenberg, M. (2007). *The developmental pattern of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in adolescence. Will the teenager ever be able to resist?*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Sutton, J., & Smith, P. K. (1999). Bullying as a Group Process: An Adaption of the Participant Role Approach. *Aggressive Behavior*, 25(2), 97-111.
- Yang, J. F. (1997). *Non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s: Simulation studies of the Kenny-Judd model*. Ph D. thesis: Department of Statistics, Uppsala University.
- Veenstra, R., Lindenberg, S., Winter, A. F., Ormel, J., Oldehinkel, A. J., & Verhulst, F. C. (2005).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elementary school: A comparison of bullies, victims, bully/victims, and uninvolve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1(4), 672-682.
- 1 차원고접수 : 2009. 07. 10.
수정원고접수 : 2009. 08. 26.
최종게재결정 : 2009. 08. 28.

A Mediated Moderation Model of Conformative Peer Bullying in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Peer Conformity -

Cho, Yoonju

Institute of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Korea University

Chung, Ock-Bo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mediated moderation model for conformative peer bullying and gender differences in a causal model. This was done by means of multi-group simultaneous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a sample of 391 seco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Peer pressure and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interacted with one another to effect antisocial conformity, which then affected bullying in the form of a conforming behavior, establishing its mediated moderation effect. A direct influence of peer pressure on conformative peer bullying was further identified. Moreover, multi-group analysis indicated no gender differences. These results imply that peer pressur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relationships among teenagers and that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which offers a protective role against conformative peer bullying through resistance to antisocial conformity, must be acknowledged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moderate conformative bullying in adolescents. Finally, it can be argued that the mediated moderation model on conformative peer bullying is a mechanism that can be generally applied regardless of gender differences.

Key words : Conformative peer bullying, Peer conformity, Peer pressure, Resistance to peer influence